

# 새만금산업단지에 ASU 플랜트 '첫 삽'

### 한국특수가스,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착공식 개최... 약 1천억원 투자 · 고순도 산업가스 안정적 제공 기대

17일 한국특수가스(주)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ASU 플랜트란 Air Separation Un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공기(액화)분리장치를 말한다. 일반 공기를 초저온상태로 만들면 비등점 차이에 의해 질소, 산소, 아르곤 등을 얻을 수 있다.

한국특수가스(주)는 전북 최초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등 산업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회사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착공식으로 공장의 첫 삽을 뜬 한국특수가스(주)는 약 1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산업단지 내 1공구에 산업용가스 ASU 플랜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내에 액화가스 6천톤의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연말까지 ASU 플랜트 준공을 마무리해 내년 4분기부터는 지중 배관망으로 가스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분기부터는 ASU 플랜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



17일 한국특수가스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용 가스 ASU 플랜트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하여 새만금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에 양극재, 전구체 생산공정 및 니켈 정제공정에 사용될 고순도 산업가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플랜트 건설은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기업에 산업용 가스의 공급확대를 본격화하여 전북 및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내 공

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산업 내 산업용 가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번 착공확대를 본격화하여 전북 및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 내 공

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도내 향토기업인 한국특수가스의 ASU플랜트 착공을 축하하며, 군산시는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군산=이재춘 기자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달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7일까지 익산청소년경찰학교와 치안현장, 여성·아동 치안 협력 단체 등을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현장 소통 나서

###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 원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방문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달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17일까지 익산청소년경찰학교와 치안현장, 여성·아동 치안 협력 단체 등을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먼저 여성 범죄피해자 긴급 구조와 상담을 담당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를 방문하여 스톱킹과 교제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추후 전북자치도경찰청, 민간경비업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스톱킹, 교제폭력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원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방문에서는 전주한옥마을 음주소란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에 금주 구역 지정 및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 지역은 음주소란 행위로 지나가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음주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 구역으로 상반기 동안만 217건의 음주소란 관련 신고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주시와 금주 구역 지정 운영을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2008년부터 오후 2시부터 5시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와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 향후 실시될 늘봄학교와 같은 제도 등을 반영하여 정규순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도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의 재난안전 부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으로, 전북번호사회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치안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협력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치안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체계 구축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 상담전화 운영

###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 양육지원 생활시설 입소 연계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쁨의하우스'를 위기임산부 지원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로 지정하고,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돕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운영되며,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24시간(전국 공통 상담전화)을 24시간 운영한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 출산에 필요한 상담과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 통해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한다.

록 지원한다.

또한, 출산 시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품품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안전한 양육 지원을 위해 생활시설 입소 등도 함께 수행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 등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위기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우선적으로 가정위탁에 보호되고, 필

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육시설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의 위기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에 앞서 선제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상담창구 운영 및 민·관 협의체 구축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보호 맞춤형 안심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도는 앞선 노력과 함께 정부방침에 힘을 더해 위기임산부 보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위기임산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환경보건 맞춤형 교육 활성화 앞장

### 환경보건 강사 양성과정 운영... 지역사회 환경보건 맞춤형 교육 제공 발판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보건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전문 강사양성에 나선다.

도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보건'에 맞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17일부터 8월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대상은 환경 및 보건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강의 경력에 있는 강사이다.

교육내용은 △환경보건의 이해, △환경유해인자별 노출 및 건강영향, △환

경감수성 캐우치, △환경보건 교육 자료 개발 및 수업 시연 등이다.

교육내용은 환경보건센터와 환경교육센터가 협업하여 도내 환경교육 강사 현황을 파악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수요도 조사를 통해 구성되었다.

강의를 수료한 강사들은 나아가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보건 인식증진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과 환경보건은 이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환경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배출하여, 지역사회 환경보건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집중호우 피해농가 동물의료지원단 가동

### 동물의료지원단 3개팀,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에 동물의료지원단 3개팀을 가동하고 피해농가 지원에 나섰다.

동물 의료지원단은 호우피해가 큰 완주군 화산, 용진, 운주, 비봉지역의 소·닭 사육 40 농가를 돌며 가축 질병 예방 활동을 하고, 소 사육 5농가 44두에 항생제, 해열제 등을 지원했다.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폭염을 대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를 주축으로

질병담당자, 공수의사, 축협 수의사 3명으로 구성, 총 4개 반이 운영되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성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의 심 가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